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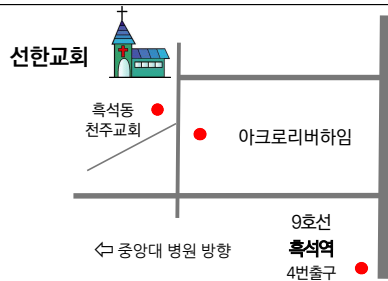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 외 선교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웅,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6)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7장	
교 독 문		교독문 8번 (시편 14편)	
찬 양 과 경 배		412장 (통일찬송가 469장)	
말 씬 봉 독		요한계시록 2장 8 ~ 11절	
설 교		서머나교회에게 주신 말씀 (임춘배 목사)	
헌 금		500장 (통일찬송가 258장)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배 안내

1. 기간: 2월23(주일)~3월31일(화)
2. 주일예배: 11시 예배만 드림 (가정 영상예배)
※ 홈페이지와 교회공지방 링크
3. 주중예배: 금요기도회만 영상으로 드림

2. 기타안내

1. 출석체크를 위해 가정별로 영상예배 드리는 인증샷을
담당목사님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방법 예시 : 김소망십일조, 김소망감사, 김믿음건축,
김믿음구제, 김믿음전도 김믿음선교 등
※ 대구.경북지역 돕기 헌금은 '김은혜대구'로 표시
- 목적헌금 입금 예시 : 김사랑목적(입금 후 재정부장에게
목적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3. 개인경건훈련 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 [금주범위: 사사기~느헤미야] *일독 기념품 증정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카톡 성경공부

4. 코로나19 기도 제목

1.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코로나 19 확진자들의 완치와 빠른 백신 개발을 위해 기도합니다.
4.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회개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5. 코로나 19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6. 코로나 19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이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무엇보다 크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가정예배	경멸의 무게
찬송 :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통 507장)	
본문 : 마태복음 5장 21~26절	
말씀 : 본문 21절부터 48절까지는 비슷한 패턴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서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며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살인이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발적이든 계획된 살인이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고통과 공포로 영원히 기억된다면 어떨까 상상해 보십시오. 살인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심판은 사형을 말합니다. 목숨을 빼앗았을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중략)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유대인들이 이미 배운 율법도 매우 엄중한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더 무겁습니다. 형제에게 ‘라가’라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듣기에는 그다지 큰 욕이라 생각되지 않지만 이 속에는 경멸과 혐오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 특히 함께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사람들을 향해 경멸과 혐오를 담아서 욕을 하는 사람들은 살인하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은 결과를 보고 판결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입니다. 누구나 화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실제로 복수를 하지 않고 생각에서 끝난다면 굳이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하는 것까지도 동일한 무게로 여기시니 굉장히 가혹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 상황이 지속될수록 자신의 영혼이 파괴됩니다. 분노감에 차 있으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상황 판단도 이성적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마저도 외면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으려는지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23절, 24절에서 형제에게 잔뜩 해코지해 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아무렇지 않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새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십니다. 새 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어야 온전해지고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혐오와 배제로 가득한 요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애써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서머나교회에게 주신 말씀 (계2:8-11)
서론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였고 소아시아 7교회(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론	1. 서머나교회의 상태 (1)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①‘처음이며 마지막이요’ ②‘죽었다가 살아나신 이’(8절) (2) 주님의 칭찬: ①‘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네가 부요한 자니라’(9절) ②‘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사탄의 회당)들의 비방’(9절) (3) 주님의 권면: ①‘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②‘너희가 십일동안 환난을 받으리라’(10절) (4) 주님의 약속: ①‘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10절) ②‘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11절) 2. 교훈 (1) 고난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필수요소이다. (2)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3) 고난 앞에 두려워하거나 무너지지 말자.
결론	환난과 궁핍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Q.T.		정치적 왕국이 아닌 진리 왕국의 왕	날짜 : 3월 9일
찬양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본문	요한복음 18:28-40		
	유대독립을 위해서 민란을 주도했던 ‘예수 바라바’가 유대인들에게 주려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오매불망 원했던 황금시대, 다윗왕국의 재건입니다. 이스라엘 독립 만세였던 것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진리니’ 하고, 무리와 군중 속에 적당히 숨어 부와 번영을 목적삼아 좀 더 안락한 삶을 꿈꾸며, 화를 당하지 않을 만큼만 종교적 열심을 내는 자신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들으라’ 하고 폐부를 찌르지 않나,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려야 합니까? 새벽부터 분주히 동부서주하며, 결벽과 거룩을 위해 그렇게도 부단히 노력하고 종교적 열심을 내던 ‘그들이’ 기껏 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고 ‘예수 바라바’나 살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런데 마냥 우습지만은 않은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도 그다지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의 선택은 과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입니까? ‘예수 바라바’의 것들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습니다. 기꺼이 인생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마저도 가차 없이 죽이고 마는 이 서글픈 현실의 인생들을 그리스도는 품어냅니다. 당신의 피로 씻어내시고, 당신의 진정한 생명의 웃음음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은혜에만 꼭 붙들려 있는 우리 되십시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 오직 은혜만 바라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돕는 질문	1. 그들이 새벽부터 빌라도 관정으로 예수를 끌고 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그들이 빌라도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관정 밖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그들의 삶과 나 자신의 삶은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 은혜에만 붙들려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성경공부		“다 이루었다!”
찬양과 기도	만세 반석 열리니 (새 494/통 188)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헌혈을 해 달라는 광고를 종종 봅니다. 또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죽어 가니 동일한 혈액형인 사람의 헌혈을 간절히 원한다는 뉴스도 듣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아직도 사람의 혈관 속에 흐르는 피를 대체할 인공 혈액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체 혈액량의 30% 이상을 상실하게 되면 사람은 죽음을 맞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을 살릴 유일한 방법은 다른 이의 피로 그 사람의 혈관을 채워 주는 것입니다. 1901년 카를 란트슈타이너(Karl Landsteiner, 1868~1943)가 ABO식 혈액형을 발견하고 1914년 항응고제가 개발되면서 헌혈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혈액형이 맞다고 해서 아무 피나 수혈할 수는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피를 받으면 가까스로 화생한 환자가 오히려 몸살 병에 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헌혈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헌혈자 자신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헌혈은 한 번에 400cc 이상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레 17:11)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마땅히 피 흘려 죽어야 할 우리 생명을 위해 누군가가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당신은 기억하나요? 마음속에 십자가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 혹은 느낌이 드나요?	
말씀 나누기	요한복음 19:28~37	
묵상포인트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신 완전한 인간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완전한 구세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대속의 죽음에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려 죽으심으로 승리하고 영생 얻는 본을 친히 보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패배로 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예수님의 가상철언(십자가상에서 하신 일곱 말씀) 중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무엇이며, 그분의 어떤 면을 드러내나요?(28~30절)	
적용하기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천 년 전에 있었던 대속의 사건을 매일 제 삶에 되새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예수님을 사랑한 빈 무덤의 증인들	날짜 : 3월 13일
찬양	찬송가 167장 즐겁다 이 날		
본문	요한복음 20:1-10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따르면 믿게 되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예고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의 첫 번째 발견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고 무덤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빈 무덤을 보자 누가 시체를 훔쳐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빈 무덤의 첫 번째 증언자로서 영예를 얻는 것은 오만합니다. 비록 부활을 믿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무덤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행동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됩니다. 비록 주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사랑해서 따라가면 결국 그분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무덤의 증인과 부활의 증인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 베드로와 애제자도 빈 무덤을 직접 보았지만 부활과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누가 시체를 훔쳐 갔다가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체를 샀던 천과 수건이 남아 있으니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빈 무덤의 증인이기는 했지만 아직 부활의 증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자기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그들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따라갔기에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증인이 됩니다. 부활은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목도한 증인들의 증언을 성령이 믿게 하심으로 믿게 됩니다.		
묵상을 돕는 질문	1. 주님의 무덤에 간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2. 다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늘의 기도	사망 권세의 돌을 옮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절망적인 현실로 인해 눈이 가려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우소서. 다시 사신 주님을 향해 사랑으로 달음질해 기쁨과 승리를 맛보게 하소서.		

매일 Q.T.		조롱 속에 역설적으로 드러난 메시아 왕의 정체성	날짜 : 3월 10일
찬양	찬송가 457장 겻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에		
본문	요한복음 19:1-16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선민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받는 나라요 민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시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너희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며 왜 너희의 왕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설득하며 놓아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그 어떤 왕도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군중으로부터 불러내시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에 응답하여, 다른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만 몰두하던 ‘민회’의 삶과, 영문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온갖 선동에 좌지우지 당하던 미련한 군중의 ‘모임’에 마침표를 찍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에클레시아’로 살아가야 합니다.		
묵상을 돕는 질문	1. 본문에서 빌라도가 오해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힘과 권한에 대하여 빌라도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다른가요? (10-11절) 2.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한 사람은 누구이며, 이 선동에 동조하여 소리를 지른 무리들은 누구입니까?(6절, 12절, 15절) 이 상황을 오늘 우리 사회에 적용한다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까요?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주신 힘과 권한과 소유를 내 맘대로 사용해도 되는 줄 알고 남용하며 나의 필요만을 위해 사용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겸손과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챙기며 교만하게 행동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Q.T.		십자가 명패의 의미, 메시아 왕위 즉위식	날짜 : 3월 11일
찬양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본문	요한복음 19:17-27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책임감입니다. 내 죄가 실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 당연한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 큰 무거운인 줄 압니다. 그리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잘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의 몫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남의 몫의 십자가를 분노와 원망 속에서도 짊어 질 수 있지만 내 것인 양 짊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못 한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갑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랑 포기하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주님 따라 하는 겁니다. 남의 몫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비로소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묵상을 돕는 질문	1. 빌라도가 쓴 패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었습니까?(19절) 2.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눈길을 둔 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26절) 3. 내 몫의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기도	하나님, 내 몫의 십자가가 무거워 그만 놓고 싶습니다. 쓰러지는 하늘에 덩달아 무너지고 싶습니다. 주님은 남의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저는 내 몫의 십자가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남의 몫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 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Q.T.		사명의 성취, 성경의 성취	날짜 : 3월 12일
찬양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본문	요한복음 19:28-37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은 역사적 실재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경감하는 진정제를 탄 포도주가 아니라 생명을 연장해 고통을 더하는 신 포도주를 마시셨습니다. 죽음을 제외하고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완수되었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죽음에 임박해서 예수님이 하신 세세한 행동은 성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십자가 죽음을 주도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형적으로는 로마 군인에게 죽임당하신 것이지만, 심층적으로는 인류 구원을 위해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뜻을 완수하신 것으로 요약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따라 자신의 영혼을 주도적으로 내어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 그분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두 사람은 로마 군인에게 강제로 다리를 꺾여 죽임당했지만,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셨고 자기 영혼을 이미 하나님께 내어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군인의 창에 옆두리를 찔려 물과 피가 섞여 나와 죽음이 확인되었을 뿐입니다. 이 일도 유대인이나 로마 군인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로 오직 성경이 성취된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서 일어납니다. 우리 삶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과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묵상을 돕는 질문	1.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것으로 요약된다면, 내 삶은 어떠한 해야 할까요? 3. 성경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성취되도록 온전히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하나님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니 감사합니다. 환경과 물질과 사람의 어려움과, 자신의 어리석음과 누추한 성품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이지만 그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